

완성차업계, EV모델 가격 경쟁력 집중... 시장 선점 '방점'

현대차·기아 재고할인 등 혜택 강화 KGM '토레스 EVX' 3900만원 구매 볼보 'EX30' 세계 최저가 수준 출시 BYD '아토 3' 2000만원대 구매 전망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정부의 전기차(EV) 지원 정책에 맞춰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완성차 업체들은 충전 인프라 구축 문제와 가격 부담 등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며 친환경차 시장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EV 모델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이 프로모션으로 전기차 9개 차종에 대해 기본 차량 가격 할인에 월별 재고 할인까지 더해 차종별로 300만~5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네시스는 GV60 300만원, G80 전동화 모델 5% 가격 할인을 해준다. 서울에서 이 최대 구매 혜택을 적용할 경우 ▲아이오닉 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모델 5410만원→4438만원 ▲



현대차 아이오닉 6.



기아 EV9.



푸조 e-2008.

아이오닉 6 2WD 스탠다드 18인치 모델 4695만원→3781만원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모델 4142만원→3152만원으로 실제 구매가가 낮아진다.

기아도 'EV 패스타'를 통해 ▲니로 EV 200만원 ▲EV6 150만원 ▲EV9 250만원 ▲봉고 EV 350만원의 제조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생산분에 대해선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차종별로 350만~500만원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 기준으로 ▲EV 6 2WD 19인치 롱레인지 트림 5060만원→4058만원 ▲EV9 2WD 19인치 에어 트림 7337만원→6560만원 ▲니로 EV

에어 트림 4855만원→3843만원 ▲봉고 EV 1톤 2WD 초장축 킹캡 스마트 셀렉션 트림 4315만원→2450만원으로 구입 가격이 낮아진다.

KG모빌리티(이하 KGM)도 전기차 가격 할인 대열에 합류한다. KGM은 전기 SUV 토레스 EVX에 75만원을 지원해 실구매가를 최저 3900만원대로 맞추고 택시 전용 모델인 토레스 EVX와 코란도 EV에는 각각 150만원, 100만원을 제공한다.

수입차 업계도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 3일 콤팩트 전기 SUV

EX30을 전 세계 최저가 수준인 4000만원 초반대(국고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적용 기준)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 출시했다. 신차 효과와 최대 333만원 할인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초반 흥행 몰이에 나서기 위함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한정 전기차 보조금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오는 28일까지 지프 어벤처와 푸조 e-2008을 구매할 경우 각각의 국고 보조금 예상치인 212만원, 209만원 지원과 더불어 고객의 거주 지역에 따른 지

자체 보조금 예상치를 한 번에 모두 지원한다. 여기에 각 브랜드의 전기차 프로모션과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기기 장착 혜택까지 더하면 지프 어벤처는 최소 539만원, 푸조 e-2008은 최소 786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초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업체 BYD도 소형 전기 SUV 아토 3의 판매가격을 중국 현지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 아토 3의 판매가격은 3150만~3330만원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적용 시 2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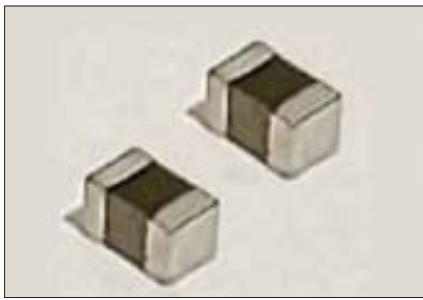
삼성전기, 초소형 고전압 MLCC 개발

업계 최고수준 10V 고전압 구현 고성능 전장용 시장 본격 진출

삼성전기가 자율주행의 핵심 장치인 라이다(LiDAR) 시스템에 탑재되는 MLCC(적층세라믹콘덴서)를 개발하고, 고성능 전장용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기는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한 초소형 고전압 MLCC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삼성전기가 개발한 MLCC는 1005크기(가로 1.0mm, 세로 0.5mm)의 2.2uF(마이크로패럿) 용량, 10V(볼트) 고전압을 가진 제품이다. 고전압을 기존 6.3V 대비 약 60% 높여 동일 규격에서 세계 최초로 전장제품 필수 신뢰성 규격인 AEC-Q200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차량 내 ADAS, 바디(Body), 새시(Chassis),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와 같은 다른 응용처에도 사용이



자율주행차 라이다용 MLCC /삼성전기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은 자율주행의 핵심 장치 중 하나인 라이다 시스템에 사용된다.

라이다는 차량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정밀한 거리 측정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발한 기종은 동일 크기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고전압을 구현한 제품이다. 삼성전기는 첨가제를 독자 개발하고, 유전체 내에 비어있는 공간을 최소화하는 신공법으로 높은 전압에서

도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했다.

삼성전기는 초소형, 초고용량 MLCC 부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온·고압·고신뢰성 등 전장 제품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및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MLCC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장 MLCC 시장은 2024년 4조 5000억원에서 2028년에는 10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기 컴포넌트솔루션 사업부장 최재열 부사장은 "자동차의 전장화로 고성능·고신뢰성 MLCC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삼성전기는 MLCC의 재료·설비·공법 등 요소기술 확보를 통해 차별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 시장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AI 구독클럽으로 PC·태블릿 이용하세요"

삼성전자 구독가능 품목 확대

삼성전자는 'AI 구독클럽'의 구독가능 품목을 PC와 태블릿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AI 구독클럽은 삼성전자 제품을 장기 할부로 부담없이 구매하고,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관리 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가전과 스마트폰뿐 아니라 IT 제품까지 선택이 가능해졌다.

PC, 태블릿 제품의 요금제는 제품과 케어서비스를 결합한 'AI 올인원', 제품에 소비자가 원하는 케어서비스만 선택이 가능한 'AI 스마트'로 나뉜다.

PC 구독 서비스의 경우 AI 올인원은 48개월 상품으로, AI 스마트 요금제는 24개월 상품으로 운영한다. AI 올인원의 경우 구독 대상 PC는 40 TOPS 이상을 충족하는 코파일럿+ 제품이다. TO

PS는 1초당 1조번의 연산 능력을 의미한다.

두 요금제 모두 구독 기간 내 파손보상·무상수리 서비스와 배터리 교체 또는 배터리·키보드 동시 교체 서비스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AI 올인원 요금제 고객은 36개월 차에, AI 스마트 요금제 고객은 구독기간 종료 시점인 24개월 차에 1회 받을 수 있다.

태블릿 구독 서비스의 AI 올인원 요금제는 36개월 상품으로, AI 스마트 요금제는 24개월 상품으로 운영한다. ▲갤럭시 탭 S10 울트라 ▲갤럭시 탭 S10 + ▲갤럭시 탭 S9 등 28개 모델 가입이 가능하다. AI 스마트 요금제는 상기 모델에 더해 ▲갤럭시 탭 S9 FE+ ▲갤럭시 탭 S9 FE까지 총 60개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차·기아, 美 '아이오나' 초고속 충전 서비스

2030년까지 3만기 충전기 설치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2030년까지 3만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초고속 충전 서비스에 나선다.

현대차·기아가 참여하는 북미 지역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연합체 '아이오나'는 4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본사에서 초고속 충전 서비스 출시 행사를 열었다.

아이오나에는 현대차·기아와 함께 BMW, 제너럴모터스(GM),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8



아이오나 에이펙스 리차저리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9을 충전하는 모습.

개 완성차 업체가 참여한다.

아이오나는 이번 행사에서 본사인

'에이펙스 리차저리'를 비롯한 전기차 충전소 4곳과 전기차 충전 기술을 연구하는 고객 경험 연구소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아이오나는 전기차 이용을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이오나는 올해 미국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1000기 구축하고, 2030년까지 3만기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아이오나는 지난해 2월 공식 출범 이후 1년 만에 100곳 이상의 충전소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세탁건조기 라인업·서비스 확대

트루스팀 적용... 구독 케어서비스도

LG전자가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세탁건조기 제품 신규 라인업과 새로운 구독 케어서비스를 선보였다.

LG전자는 최근 '트루스팀(TrueSteam)'을 적용한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를 출시했다. 세탁과 건조 용량은 각각 25kg와 15kg다.

트루스팀은 물을 100℃로 끓여 미세한 스팀 입자를 만드는 기술로, 건조시 빨랫감에 뿌려져 의무살균에 효과적이다. 공인시험인증기관 실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녹농균·폐렴간균과 같은

유해세균을 99.99%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한 스팀으로 건조된 옷감의 구김도 줄여준다.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며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케어서비스도 추가됐다.

워시콤보 스팀을 구독하면서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원하는 방문 주기를 선택하면 된다. 구독 기간 내에는 사용하다 생긴 부품 이상에 대해 무상 AS도 지원한다.

워시콤보 스팀의 출하가는 454만원으로 6년 계약 및 케어 매니저의 12개월 주기 방문 기준 월 구독료는 월 8만 5900원이다.

/구남영 기자